

# 對 話

## 誌友들에게 드리는 편지

—50호를 보내면서—

蠻勇으로 지난 1969년 7월에 本誌 첫호를 낸 것인데 벌써 했수를 5年 50호를 내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생활비를 무조건 半으로 줄이고 그리고 문돈으로라도 남을 돕는 일에도 잔인하기로 결심하고 또 식구들을 설득하고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 때는 허리띠를 조르면서도 한다고 다짐했으며 또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집도 들어 먹을 작정이냐고 걱정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집도 없어 들어 먹을 걱정도 없으니 걱정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때로고 사실 배를 의식적으로 줄라 맨 일도 없어 이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후원회라도 조직하라고 권했으나 끝끝내 그러지는 않았고 또 선전을 하라는 권고도 자주 했으나 그러지도 않았읍니다. 그러나 지난 5年동안 위기도 여러 고비 있었고 몇 차례 그만 손을 돌려고 했었으나 번번히 친구들이 격려를 해 주었고 또 物心兩面의 도움으로 용하게 고

비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淺學하고 문재인데다가 게으름까지 합쳐서 여러 誌友들을 실망시켰고 또 원고에 알맞는 謝禮를 할 처지가 못되어 감히 누구에게 원고 부탁을 할 념은 못했기 때문에 소원대로 內容을 충실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本誌를 위해서 貴한 글을 〈自進〉 보내 주신 이들의 글들이 있어 오늘까지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궁색한 살림이라 事務室하나 제대로 두지 못했고 가끔 自願해서 도와주는 이들의 도움이 있기는 했으나 자주 바뀌거나 누구도 없으면 집안에서 비사무적으로 단속적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성스러운 誌友들에게 까지 사무적 착오를 번번히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책망하는 이는 없고 늘 격려해 주는 여러분의 응원의 덕으로 얼굴을 들고 또 용기도 내곤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韓國神學研究所를 창립한 후부터 서로 제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무적으로는 차차 정비가 되고 제자리에 들어선 상태

입니다. 오랫동안 향린교회의 姜承氏가 봉사로 편집을 담당해 주었고 연구소창립 후로는 孫奎泰幹事が 틈나는 시간을 다 들어, 편집을 담당하고 있으며 역시 연구소 秘書 김미동양이 사무를 담당해 주고 있어서 비로소 제 길에 들어 선 감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를 돕는다고 보아 宣敎的 성의라고 보아 나로써 감사하다는 말도 삼갔습니다.

50호쯤 됐으면 한번 祝賀의 모임이라도 가지라는 권고도 있으나 워낙 조용히 시작했고 또 조용히 誌友들과 사귀는 것으로 족하다는 처음 뜻을 굽히기 싫어서 역시 조용히 이번 기회도 지나기로 했으나 마음에서 여러 誌友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이 붓을 들었습니다.

誌友 여러분 그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하찮은 내용인데도 처음부터 꾸준히 誌友로 머물어서 이 글을 읽어주신 이가 지금의 誌友의 半은 되고 그 뒤로 증가된 誌友는 모두 여러분이 소개해 준 분들인 줄 압니다. 극히 제한 될 몇 서점(그것도 서울에만)에만 내 놓을 뿐 대부분 정기독자들입니다. 그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신약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겠지만 처음보다 점점 더 성서연구자의 성격

을 띠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드시 그러한 성격으로 고정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새로운 문제와 신학의 동향도 소화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로는 능력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외국인 논문들을 계속 실려 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부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주간인 제 자신의 글로는 간단한 편씩과 성서연구, 그리고 여러분과의 삶의 대화를 목적으로 한 이 對話란을 계속 담당했습니다. 간간히 강연한 것과 그리고 神學者評論을 몇 차례 냈습니다(이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분이 많아서 계속하고 싶으나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강단>은 꼭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근거로 했으나 완전히 새로 쓰다 시피 한 성서 중심의 논문들입니다. 그중에 <.....습니다>의 형식으로 된 10편이 설교를 녹음한 것을 姜承씨가 마음대로 골라서 옮긴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손을 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지고 또 물을 만들다 보면 生動性이 없는 듯해서 강단에서 한 그대로를 옮겨 보기로 했으며 그런 경우에는 활자화 되기까지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까닭은 보면 그대로 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시 비록 강단에서 한 설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제로 하나 내 손으로 다시 꾸며서 내용을 작성합니다. 힘이 겨우나 아무래도 그 쪽이 책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관서를 제목에 따라서 논구한 다음에 처음으로 주석으로 요한 1서에 착수한지도 一年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되려면 몇차례 더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 주석처럼 한마디 한마디 주석하지 않고 제목을 설정해서 집중적으로 본 뜻을 찾는 방법을 씁니다. 이것은 요한신학을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소원은 요한복음을 본격적으로 계속 같이 연구해 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가 끝나면 바울에게로 일단 옮겨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어느 편지 하나를 선정할지 아니면 題目別로 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余力이 있는대로 전보다도 좀 짧게라도 여러 神學者들을 評論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의 글은 그분들의 응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는 金正俊博士 그리고 金二坤교수가 구약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논구해 주어서 聖書研究欄에서는 자부심을 갖게 됐으며 앞으로

로 당분간은 계속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한동안 友誼에서 계속 컬럼을 써 보내주신 安秉煜교수의 뒤를 이어 여러 친구들이 계속 담당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혼자 애쓰는 걸 한동안 관망하다가 측근한 생각이 드는 모양이지요.

저는 비록 宗教誌라도 無料讀者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옹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筆者들 이외에는 무료 증정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誌友될 뜻을 알린 분에게는 하여간 보내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代金은 추후로 보내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동안 보내다가 전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誌友될 意思가 없는 것으로 알고 中斷했습니다. 그러나 誌友 중에 정말 경제적 사정 때문에 誌代를 보내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려 주시면 그렇게까지 원칙 밑에 굳어 버릴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무적으로 정비가 되지 못해서 一律主義로 本人의 事情도 미처 묻지 못하고 중단해서 怒여움을 산 에 들이 있는 것을 후에 발견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은 마음을 다시 여시고 誌友되실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雜誌는 誌友들과의 호응이 중요합니다. 되도록 육이든 칭찬이

든 느끼신대로 소식 전해 주시면 더 없는 응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誌友의 편지란을 本格化하고 싶습니다.

50호를 내면서 誌友 여러분들과 어떤 사랑방에 앉아서 얘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두서없는 편지를 씁니다. 誌友의 家內와 하시는 일에 祝福을 빕니다.

## 25 시

루마니아의 亡命客인 詩人이면서 神父인 게오르규가 한국에 왔었다. 文學思想社에서 그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시간이 맞지 않아 참석 못했고 원래 여기 저기 찾아 다니는 버릇이 없는 게으름뱅이인 탓에 얼굴은 못 봤지만 바로 그가 한동안 실험을 공부한 같은 Heidelberg에서 그의 소설 〈25時〉를 읽은 일이 새삼스러워 그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小說을 자주 생각했다.

그는 소련 〈붉은 군대〉에게 조국을 짓밟히고 미국을 유토피아 처럼 생각하고 서방땅을 찾아 떠났다가 〈自動的〉으로 二年 이상 46個所의 수용소를 전전하는 고생을 거듭하다가 〈自動的〉으로 풀려나와 하이델베르크에서 일터를 찾았다. 일터에 갔더니 거주증명서만 해오면 일자리가 있다기에 거주 증명서를 청

했더니 일자리 증명서만 해오면 거주 증명서를 해 준다고 했다. 그는 門은 열렸으나 완전히 〈合法的〉으로 달친 것을 보고 절망했다. 그에게는 어디로 갈 길도 막혀 있었다. 땅위에 뿌리 박을 데는 이 넓은 땅위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프랑스로 가서 그가 말한 風蘭처럼 하늘에 뿌리를 박기 위해 神父가 됐다. 그는 25年前에 「25時」의 현실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때 정도가 아닐 정도로 「25時」의 극점에 이르렀다고 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돼 갈까? 科學文明이라는 神話에 人間이 이렇게 속을 줄이야! 그는 이 땅에 고향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있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오늘의 25時的 악순환 앞에 그리스도교는 정말 할말이 있어야겠는데 大地를 巨木들에 모두 뺏기고 巨木들에 太陽을 상실한 불쌍한 사람들이 뿌리를 향할 蒼空이 되주어야 하겠는데! 그리스도교라는 것 자체안에 영경귀가 이렇게 무성하니 저 풍난은 어디로 뻗어갈 것인가?

祖國이 없는 사람들 처럼 슬픈 일은 없다. 나는 구라파에서 祖國을 잃은 무수한 사람들을 보았다. 祖國을 잃고 數千年 망명 생활하는 이스라엘 民族은 敵前上陸해서 조국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저

토록 피를 흘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祖國을 지키고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不義를 제거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人에게 땅위에 있는 한 절대적 사명이다.

## 새 意識속의 세계觀

지난번 高大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강연을 부탁받았다. 도대체 별로 안가본 大學이 없건만 高大에서 얘기할 기회는 처음이었기에 배려 승락했으나 바로 긴급조치가 발표된 다음날이어서 가는 날이 장날격이 됐다. 넓은 강당에 학생은 가물에 콩나듯 여기저기 앉았다. 도무지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근의 책 여러개를 읽고 생각도 펴하고 갔는데 벌써 두사람이 얘기한 끝판이라 도대체 얼마나 인내의 주머니가 크면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랴!

물론 神學의 입장에서 최근의 사상적 동향을 얘기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새 意識이라고 한 것은 아직도 완성된 어떤 體系的인 것을 전제하지는 않은 듯하나 世界觀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모순이다. 世界觀! 바로 이 觀과 싸우는게 오늘날의 意識의 方向이 아닌가 싶다. 世界觀, 人生觀하는 <觀>이 바로 오늘날을 지탱하는 보장이다. 그러나 새

의식은 바로 그런 <觀>이 多元化的의로 새 것을 모색하는 새 싹을 뿜게 없애버린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한다.

나는 몰트만, 판넬베르크, 그리고 전에 자세히 살피지 않았던 셉킨, 하비 콕스, 그리 사르텔의 사고를 살피면서 오늘의 이른바 青年文化가 어디로 向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모자라서 마지막은 어물 어물!

分明히 歷史는 一大 전환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나는 豫言者라고 自負하지는 않으니 처음부터 그 부탁받기를 잘못된 것이지.

## 老會라는 것

大邱에서 慶北老會의 請師로 벌써 數個月전부터 唯一의 女老會長인 강정에 장노님의 <下命>에 의해 갔었다. 좋은 호텔에 머물고 하루에 한 시간반의 강의만 하면 돼서 잘 설수 있었으나, 어찌도 머리가 어수선했는지 정신적 피곤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인연이 된 젊은 친구들이 그토록 반가워해줘서 큰 위트가 됐다.

그런데 왜 老會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長老라는 늙을 老자도 이상한데 왜 늙은회인가? 도대체 누가 그런 이름

을 부쳤는가? 어쩌면 늙은이를 숭상한다는 한국적 풍토를 감안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모른다.

나는 作家의 궤변 따위는 믿지 않지만 老會란 이름은 이 時代에도 맞지 않지만— 까닭은 늙었다는 것은 이미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無能, 퇴폐, 보수를 뜻하기까지— 그 이름이 정말 그런 모임을 體質화시킨 것이 아닌가 두렵다.

교회가 새로울려면 그 이름부터라도 고치면 어떤가? 가령 監理敎라면 이건 民主사회에 의질적 인상이다. 왜 그리스도교가 「감독」라는 것과 통하는가? 長老敎라니 도대체 길고 늙은 교회라니 도대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적이나 말이다. 그런 이름을 달고 정말 갱신이 가능하며 젊어 질 수 있는가? 새술은 새부대에 라는데 다른 것은 못하겠으면 이름이라도 고치면 어떤가? 그래도 그 이름에 미련이 있어서 合同長老敎 統合長老敎 개혁長老敎 뭐 성경長老敎 예수교長老敎 기독교 長老敎…… 이거월 창피하지 않은가? 나도 아직 合同, 統

습이 어느 것을 가르치는지 언제나 착각하는데 도대체 公前에 이게 무슨 추태람.

老會에서 하는 일이란 사무상의 격론이다. 그런데 근경에 와서 그 틈에 강연 같은 것을 간간히 넣는다. 그것은 老會가 모이면 是非만 하다, 상처만 받고 헤어지니 적극적인 것도 찾는 기회를 찾자는 뜻에서 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정해진 강연시간에 나가면 한참 이해관계에 관한 시비에 한참 격론하는 도중이라 강연을 할려고 단에 오르면 상기된 얼굴이 역역하다. 그러나 웬만한 강연이 아니구야 그 마음들을 가라 앉일 재간이 없는 분위기다. 차라리 처음하루 이틀을 순수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사무처리에 들어가면 좋을 법한데 그렇게도 안되는 모양인지.

그러나 인사였는지는 몰라도 예정보다는 다음 아침 한번 더 한시간애기 해주기를 청하는데 그래도 그렇지만 앁구나 하는 기쁨으로 꽤 이 응했으며 「眞理」에 대한 갈구가 앞서는구나 하는 흐뭇한 마음으로 마지막 날을 보냈다.